

철강업계, 친환경車 부품 역량 집중... 안정적 수익창출 기대

포스코 이차전지 원료 확보 주력
현대제철 전기강판 생산·연구
동국제강 전기차산업 집중 방침

국내 철강업계가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맞아 본연의 경쟁력은 물론 미래 신사업이자 고부가가치인 전기차 부품으로 영역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다만 고객사인 완성차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철강사가 전기차 부품 판매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이차전지 소재 사업에서 성장을 가속화 중이다. 이차전지 관련 핵심 원료부터 소재, 폐배터리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소재사업에서 핵심인 원료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현대제철도 전기차 부품 판매 확대 전략에 부응한다. 현대제철은 전기차



전라남도 울진산업단지에서 위치한 포스코그룹의 이차전지 콤플렉스

/포스코그룹

에 투입되는 전기강판의 생산과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또 전기차 부품으로 쓰는 초고장력강과 경량화 강재의 판매 비중도 키우기 시작했다. 특히 현대제철은 핫스탬핑강 등 전략 강종 판매를 늘려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110만톤의 자동차 강판을 판매할 계획이다.

동국제강은 지난 5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특수철강을 연구해 전기차 산업에 집중한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철강업계가 이처럼 친환경 부품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전기차의 부품이 고부가가치 제품이라는 점에서 완성차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기차 소재 사업 구조상 완성차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철강업계에 부담으로 다가온다. 고객사의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할 경우 철강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현대차의 차량 판매 실적이 지난 2015년 496만여대에서 지난 2020년 374만여대로 25% 감소했을 때 같은 기간 현대제철 영업이익도 1

조4678억원에서 417억원으로 급감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주춤하는 흐름을 보여 철강업계의 영업이익도 같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지난 1월 5만 8725달러에 달하던 전기차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 9월 5만 683달러까지 하락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되면 내연기관 쪽 소재 판매를 확대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철강업체와 완성차 업체 간 부품 계약은 6개월에 한 번으로 원자재 가격 변화에 따라 제품 가격에 즉각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가격 협정 시 우선 원자재의 가격 추이와 상황을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라며 “그럼에도 전쟁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협상 시 이를 반영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기아

‘레이 EV’ 차량공유 서비스

기아가 레이 EV의 고객 경험 확대를 위해 카셰어링(차량 공유) 기업 쏘카와 손을잡았다.

기아와 쏘카는 전국의 쏘카 차량공유 대여지점인 쏘카존에 ‘더 기아 레이 EV(이하 레이 EV)’를 배치하고 차량공유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레이 EV는 기아의 도심형 엔트리 EV로 우수한 상품성과 함께 사업자부가세 환급 등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많은 고객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서비스에서 레이 EV 4인승 승용 모델의 에어(Air) 트림이 운영된다. 에어 트림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과 운전석 폴 폴딩 시트, 운전석 통풍시트 등 각종 편의사양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쏘카 대여 가능 차량에 레이 EV 투입을 기념해 쏘카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 ‘레이 EV 5시간 무료 시승 쿠폰’을 증정한다. /양성운 기자 ysw@

태광산업

ESG 위원회 본격 활동

‘애착인형 코니돌’ 전달식 진행

태광산업이 자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 신설 이후 첫 활동으로 저개발국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임직원 참여형 기부 캠페인인 ‘애착인형 코니돌’ 사회 공헌 활동에 동참했다.

태광그룹 섬유·석유화학 부문 계열사인 태광산업·대한화섬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장충동 본사에서 (사)월드쉐어와 ‘애착인형 코니돌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 조진환 태광산업 대표이사, 백민호 월드쉐어 사무국장 등 양사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캠페인은 태광그룹의 사회적 기여 가치인 ‘큰 빛 나눔’ 정신을 실현하고자 임직원 250여명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기부금과 애착인형 코니돌을 전달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美 ‘알래스카 히트펌프 연구소’ 신설

앵커리지 대학 등 컨소시엄 발족
공조사업 ‘현지 완결형 구조’ 구축

LG전자가 미국 알래스카에 ‘LG 알래스카 히트펌프연구소’를 신설한다.

LG전자는 6일 최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냉난방공조(HVAC) 제품에 적용할 히트펌프 기술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CAHR)을 발족했다.

컨소시엄에는 극지방 연구가 활성화된 알래스카 앵커리지 대학과 알래스카 페어뱅크스 대학교가 함께한다. LG전자는 알래스카 연구소를 통해 기존 실험실에서 재현할 수 없던 눈, 비, 극저온 등 다양한 환경조건과 미처 고려하지 못한 변수 등을 반영해 장시간 반복적인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7월 LG전자 CEO 조주완 사장은 미래비전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가



LG전자가 최근 美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냉난방공조(HVAC) 제품에 적용할 히트펌프 기술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발족했다. 사진 왼쪽부터 윤태봉 LG전자 북미지역대표 겸 미국법인장 부사장, 손 파넬 알래스카 앵커리지 대학교 총장, 이재성 LG전자 H&A사업본부 에어솔루션사업부장 부사장.

정·상업용 냉난방공조 사업 매출을 2030년까지 두 배 이상 성장시켜 글로벌 탑티어(Top-Tier) 종합 공조업체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냉난방 솔루션 관련 글로벌 R&D 조직을 지속 확대해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

/김서현 기자 seoh@

하며 사업 경쟁력을 키울 방침이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공조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지역에 연구개발부터 생산, 영업, 유지보수로 이어지는 ‘현지 완결형 사업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울거나이즈

2000만弗 투자 유치 성공

LLM(거대언어모델) 올인원 솔루션 기업 울거나이즈가 270억 원(2000만달러) 규모의 시리즈B 투자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투자 후 누적액은 468억 원(3500만달러) 규모다.

이번 투자에는 신규 투자사인 인터베스트, 뮤렉스 파트너스, SK텔레콤, KB인베스트먼트, LG테크놀로지벤처스 등이 합류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에이티넵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릿지벤처스, 퓨처플레이 등이 후속 참여했다.

울거나이즈는 투자금을 기업 전용 LLM 앱 마켓 보급 확대와 한·미·일 3개국에서 기업용 업무 자동화 AI 보급가속을 위한 사업에 쓸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K온-폴스타,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2025년부터 ‘폴스타 5’ 공급

SK온이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에 배터리를 공급한다.

6일 SK온에 따르면 SK온은 폴스타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온은 2025년부터 ‘폴스타 5’에 배터리 모듈을 공급한다.

SK온은 새로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SK온 측은 “이는 고가 전기차 부문에서의 고성능 NCM 배터리에 대한 수요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

닌다”고 덧붙였다.

‘폴스타 5’는 폴스타가 2025년부터 생산할 계획인 럭셔리 4도어 그랜드 투어러(GT)다. 주행 성능으로는 최대 650kW(884hp)의 출력과 900Nm의 토크 등을 갖췄으며, 폴스타의 영국 R&D센터에서 개발한 ‘맞춤형 알루미늄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산될 예정이다.

‘폴스타 5’에 탑재되는 셀은 길이가 56cm에 달하는 초장폭 하이니켈 배터리(니켈 함량80% 이상)로, 높은 에너지 밀도를 자랑한다. 음극에 사용되는 실리콘 비율을 높여 충전 성능과 에너지 밀도를 한층 향상시켰다.

모듈 케이스의 강성을 확보해 열 확

/허정윤 기자 zelkova@

삼성전자

‘버즈 FE 토이스토리’ 선포

삼성전자가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FE’와 디즈니의 인기 캐릭터 케이스를 결합한 ‘갤럭시 버즈 FE 토이스토리’ 패키지를 출시한다.

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버즈 FE 토이스토리’ 패키지는 6일부터 G마켓에서 단독 판매된다. 가격은 토이스토리 ‘랏소 베이’ 캐릭터 케이스 패키지와 ‘햄’ 캐릭터 케이스 패키지 모두 12만 5900원이다.

G마켓은 출시 기념으로 6일부터 19일까지 특별한 가격에 패키지를 제공한다. 프로모션 기간 중 가격은 10만 5900원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뉴 X1 xDrive20i

/BMW코리아

BMW코리아

‘뉴 X1 xDrive20i’ 출시

BMW 소형 SAV가 가솔린 엔진을 더한다.

BMW코리아는 뉴 X1 xDrive20i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x Line과 M스포트 2가지 트림이다.

X1은 BMW의 컴팩트 스포츠 액티비티 비하클로, 디젤에 이어 가솔린 4륜구동을 새로 추가했다.

이번 X1은 날렵한 외관에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미래지향적 분위기 인테리어, 마사지 기능을 포함한 액티브 스포츠 시트 등 편의 기능을 갖췄다. 적재공간은 최대 1600L에 달한다.

/김재용 기자 juk@